



미국장로교 목회자 설문조사

학자금 부채 보고서

자쇼런드 로이스톤, MA
수전 바넷, PhD, MSSW
2021



RESEARCH
SERVICES

왜 모든 미국장로교 목회자들에게 실시하는가? 왜 지금인가?

성도, 교회 직원, 중간공의회, 교단 지도자들은 리서치 서비스에 목회자들에 대한 질문을 자주 묻는다. 하지만 현재 갖고 있는 자료로는 이러한 질문들에 답을 하기 어려웠다. 자료가 준비되어 있지 않기에, 여론 조사를 실시해서 이와 같은 질문들에 답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로 했다. 페리 장 박사에게 이 작업을 맡겼다. 이 보고서는 설문 조사를 통해서 알게된 것을 담고 있을 뿐 아니라 새로운 질문들도 제기하고 있다. 새 설문조사는 소수인종 목회자, 은퇴 목회자, 이종직 목회자, 위임 사역 장로, "파트 타임" 목회자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 초유의 미국장로교 목회자 설문조사의 성공은 많은 협력 기관의 지원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이다. 그 협력 기관들 중 몇몇은 다음과 같다.

- Call to Health 프로그램으로 이는 연금국의 건강 증진 프로그램인데 목회자들이 건강 관리 목표에 참여하면 포인트를 적립해주고 있다.
- 미국장로교 출판국은 이 설문조사에 다 응답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향후 구매에 있어 할인을 제공했다.
- 총회사무국, 선교국, 재단국의 의사소통 직원들은 설문조사 링크가 들어있는 글을 작성했다.
- 총회 중간공의회 관계 사무처 직원들은 그 소식지에 설문조사를 주기적으로 알렸다.
- 교단 차원의 몇몇 위원회는 설문조사 링크를 그 구성원들에게 알렸다.
- 모든 기관의 데이터 그룹의 구성원들은 정기적으로 만나 미국장로교의 데이터와 데이터 보고를 논의하고 개선했으며, 새로운 협력관계를 만들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목회자들은 이러한 설문 조사를 이미 오래 전에 했어야 했다고 하면서 설문 조사에 응할 수 있었던 것에 감사를 표했다.

수전 바넷, PhD, MSSW

디렉터, 리서치 서비스
행정 서비스 그룹
미국장로교

개요

미국장로교 목회자 설문조사는 110개의 질문으로 되어 있으며 2019년 9월부터 11월 사이에 시행되었다. 또 우리가 이메일 주소를 가진 모든 미국장로교 회중에 설문조사에 응해주시도록 이메일로 부탁을 드렸다. 이 설문조사는 또 연금국의 Call to Health 도전 프로그램의 하나였다.

교단의 19,243명 (n=4,507)의 목회자 중 23%의 목회자가 설문에 응답했다.

설문조사는 한 시간대를 딱 잘라내 살펴보는 것이다.

미국장로교 목회자 설문조사를 통해서, 목회자들은 학자금 관련 부채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된다. 이 질문들은 목회자가 학사, 신학교 혹은 기타 대학원 과정이나 자녀 교육에 사용한 학자금 부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것이다. 이 질문들은 얼마나 많은 학자금 대출 부채가 있는지, 신학교 재학 비용을 위해 어떤 종류의 도움을 받았는지, 학자금 대출 잔액이 삶의 특정 측면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등입니다. 핵심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설문에 답을 보낸 목회자중 거의 절반(48%)이 부채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우려하고 있었다.
- 응답한 목회자 중 29%가 신학교 교육 관련 미상환 학자금 대출 잔액이 있다고 보고하는 반면, 7%는 학부 교육을 위해 그리고 다른 7 퍼센트는 기타 대학원 교육을 위한 미상환 학자금 대출 잔액이 있다고 보고했다.
- 응답한 목회자의 28%는 신학교 교육을 위한 대출을 받았다고 보고했다.

개요

- 05** 부채 문제
- 09** 미상환 학자금 부채
- 16** 신학교 비용 지불을 위한 지원 수령
- 17** 자녀 교육
- 20** 학자금 대출 부채 총액
- 26** 학자금 대출 부채의 영향
- 28** 성별에 따른 차이
- 32** 인종에 따른 차이
- 36** 우리가 배운 것은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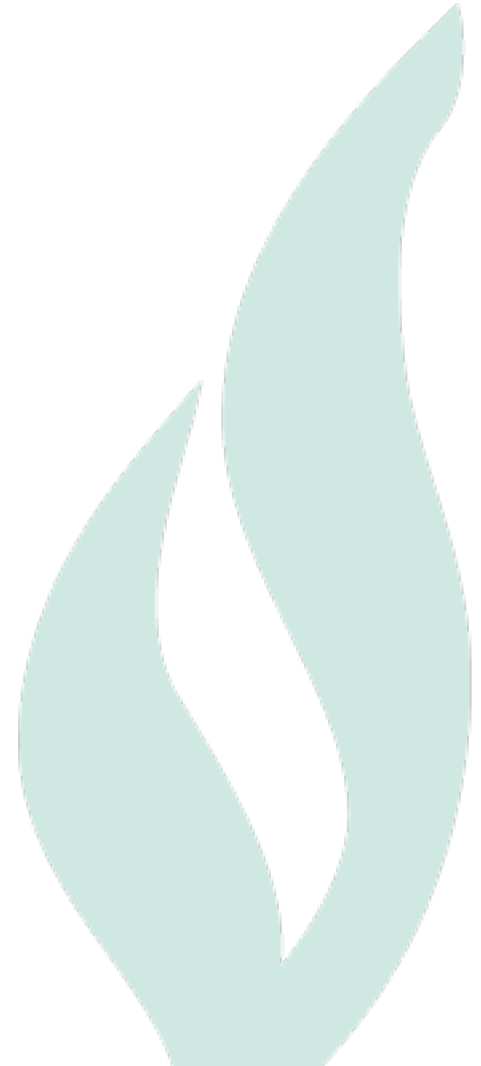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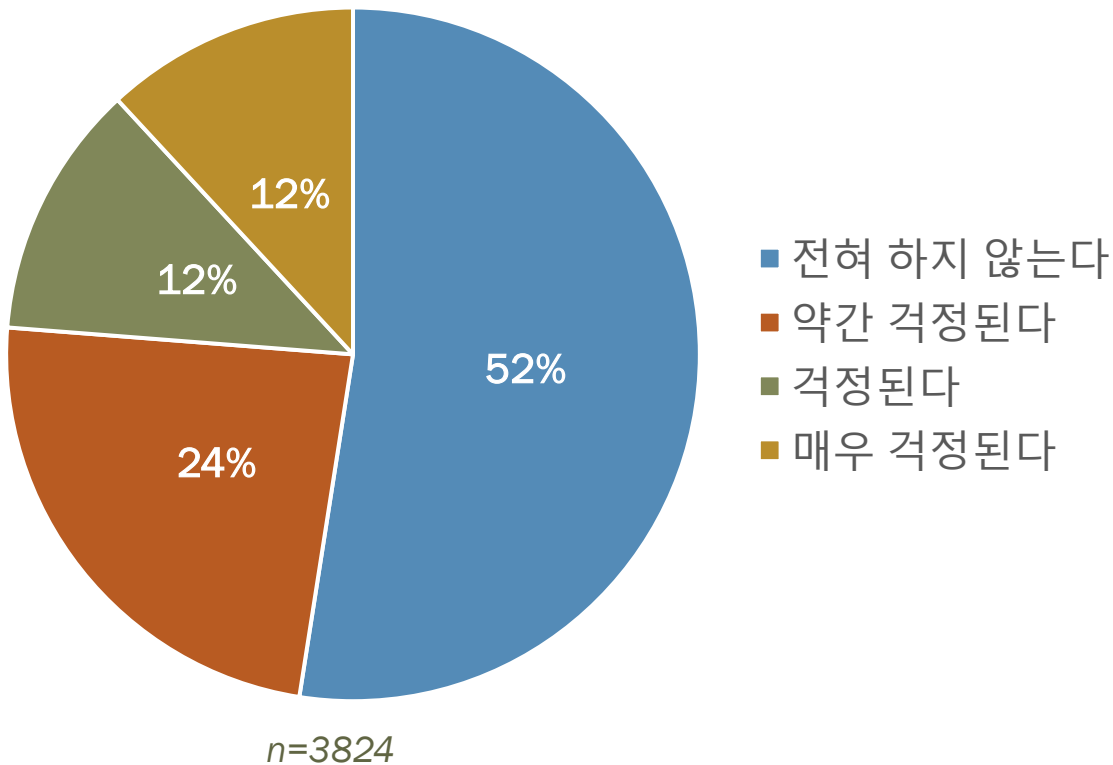


부채 문제



어느 정도로 부채에 대해 걱정하고 계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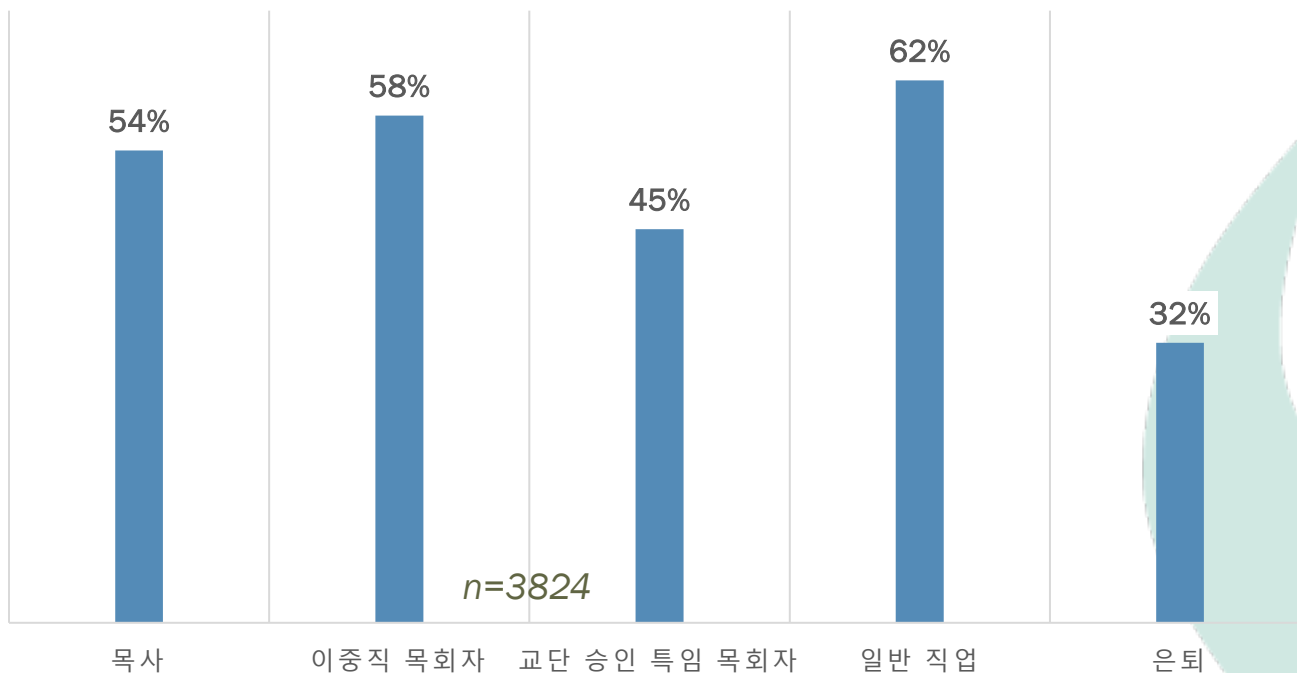
무엇보다 설문에 답을 보낸 목회자중 거의 절반(48%)이 부채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우려하고 있었다.



사역 종류에 따라 부채에 대한 걱정이 어떻게 다른가?

평균적으로, 50 % 이상의 목회자가 학자금 대출을 비롯한 부채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다. 일반 직업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들이 가장 많이 부채에 대해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 문제



나이별 채무에 대한 걱정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절반 이상이 부채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었다. 65세 이상인 이들은 39%가 부채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연령별 집단	%걱정된다	n =
20-29	55%	38
30-39	57%	380
40-49	62%	472
50-59	54%	698
60-64세	48%	707
65세 이상	39%	1341



미상환 학자금
부채



목회자 교육 관련 부채의 원천

장래에 목회를 하려는 이들을 포함하여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받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목회자들은 언제 부채를 졌는지 현재 채무 상태는 어떠한지를 묻는 질문에 답했다.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99% 목회자가 신학교 교육을 위해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

응답한 목회자 29%는 신학교 교육 관련 미상환 대출이 있다고 보고 했다.

7%는 학부와 기타 대학원 교육을 위해 부채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절반 이상의 목회자가 학부나 기타 대학원 관련해 융자 대출을 받지 않았다.

미상환 대출이 있습니까?	학부 n=3381	신학교 n=1267	기타 대학원 n=2282
네, 있습니다.	7%	29%	7%
아니오, 대출받은 금액을 다 갚았습니다.	34%	64%	22%
아니오, 학자금 대출은 받았지만 탕감받았습니다.	<1%	2%	<1%
아니오 일부는 갚고, 나머지는 탕감되었습니다.	1%	4%	1%
학자금 대출을 받지 않았습니다.	57%	2%	70%

반올림을 했기 때문에 합계가 100%를 넘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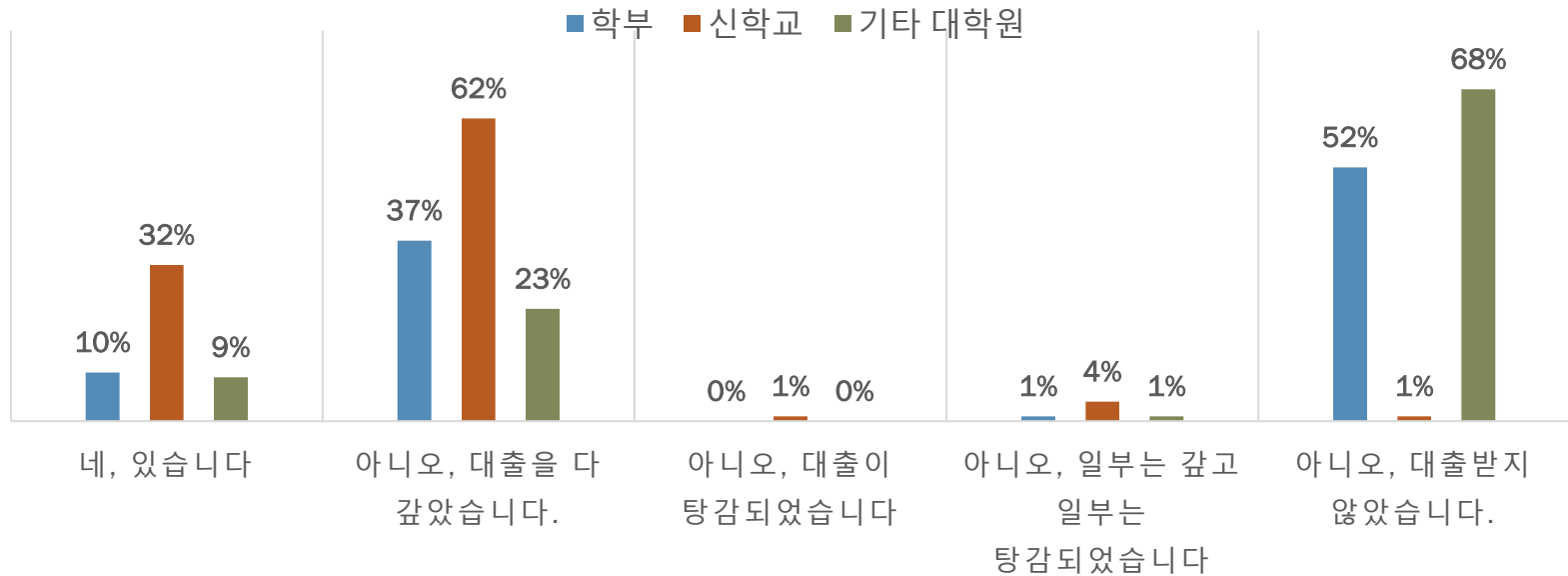
목사 학자금 대출 상황

목사는 현재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를 말한다.

교회 사역을 하는 대부분의 목사는 학자금 대출을 다 갚았다, 하지만 32%의 목사는 신학교 재학을 위한 대출 미상환 금액이 있다고 보고 했다.

62%는 신학교 관련 대출을 다 상환했다고 보고했다. 응답한 목회자 1%는 신학교 교육을 위한 대출을 받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오직 1%만이 신학교 학자금 대출이 탕감되었다고 보고했다.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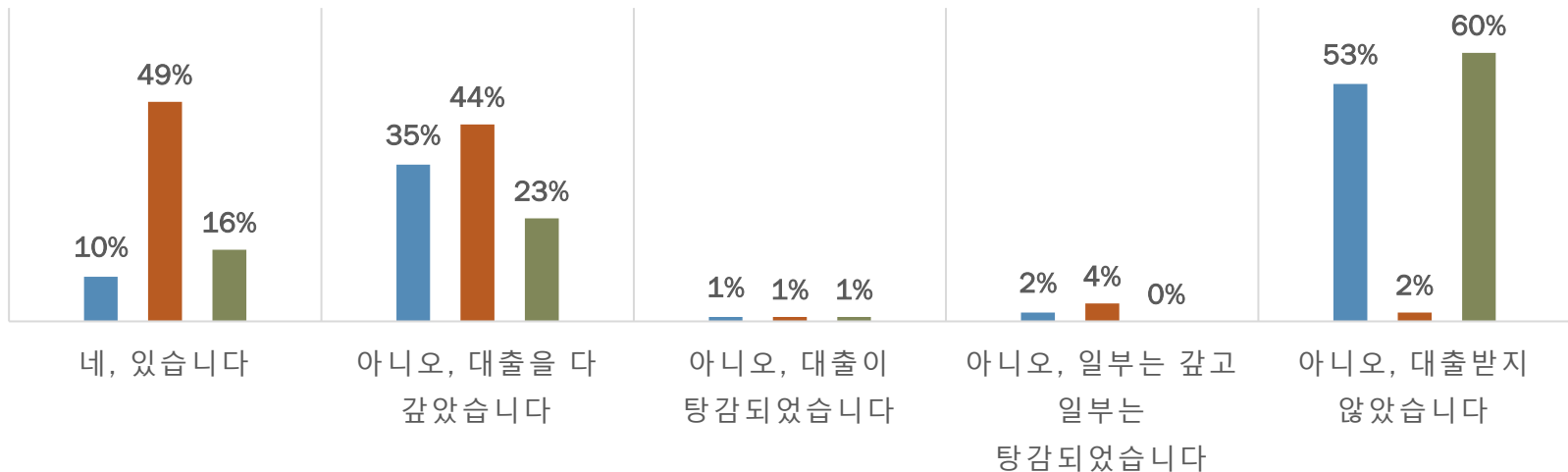
이중직 목회자 학자금 대출 상태

이중직 목회자: 회중에서 목회를 하면서 다른 직업도 가지고 있는 경우.

이중직 목회자의 49%가 신학교 교육을 위해 미지급 대출 잔액이 있다고 했다. 44%는 신학교 대출금을 갚았다고 보고하였다. 2%는 신학교 교육을 위해 대출을 받지 않았다고 했다. 오직 1%만이 신학교 학자금 대출이 탕감되었다고 보고했다.

이중직 목회자

■ 학부 ■ 신학교 ■ 기타 대학원



* 이 설문조사는 이 목회자들이 이중직 목회자로 일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다. 이중직을 하는 이유가 부득이한 것인지 선택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이후 설문 조사에서 이를 더 탐구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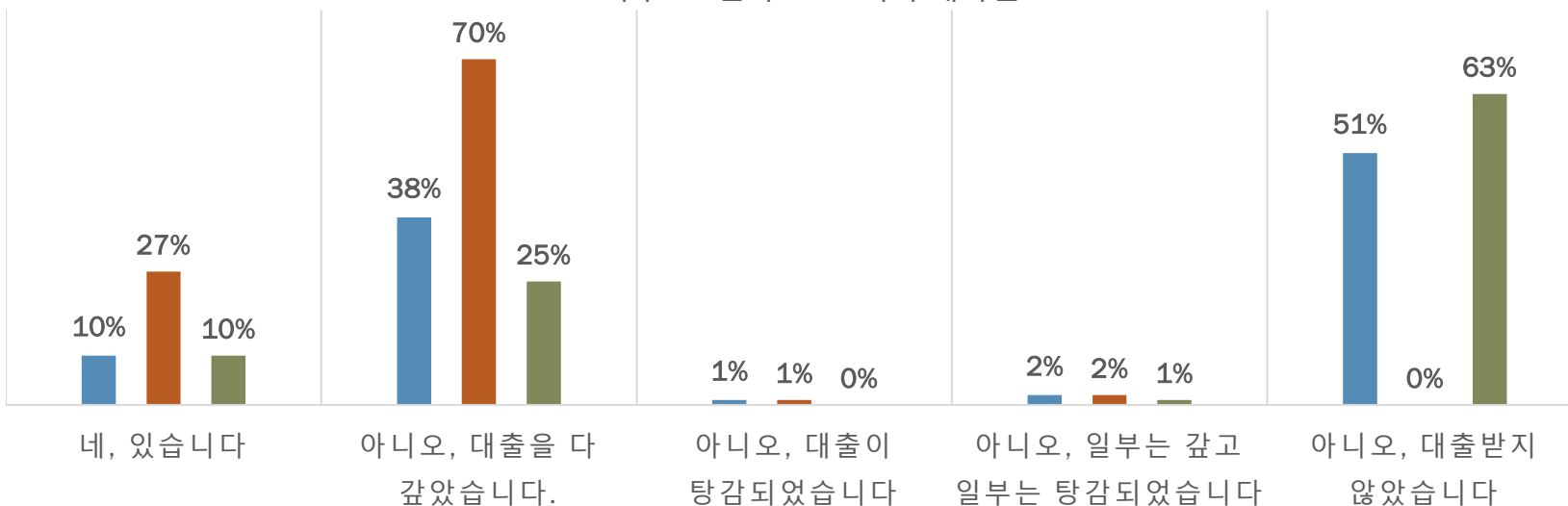
교단 승인 특임 목회자 학자금 대출 상태

교단 승인 특임 목회자: 특별 사역 목회자, 목사가 아닌 다른 직책에 대해 안수받은 목회자

은퇴 목회자의 4%는 신학교 교육 관련 미상환 대출 잔액이 있다고 보고했으며, 78%는 신학교 대출을 다 갚았다고 했다. 응답한 목회자 98%는 신학교 교육을 위한 대출을 받았다고 보고했다.

교단 승인 특임 목회자

■ 학부 ■ 신학교 ■ 기타 대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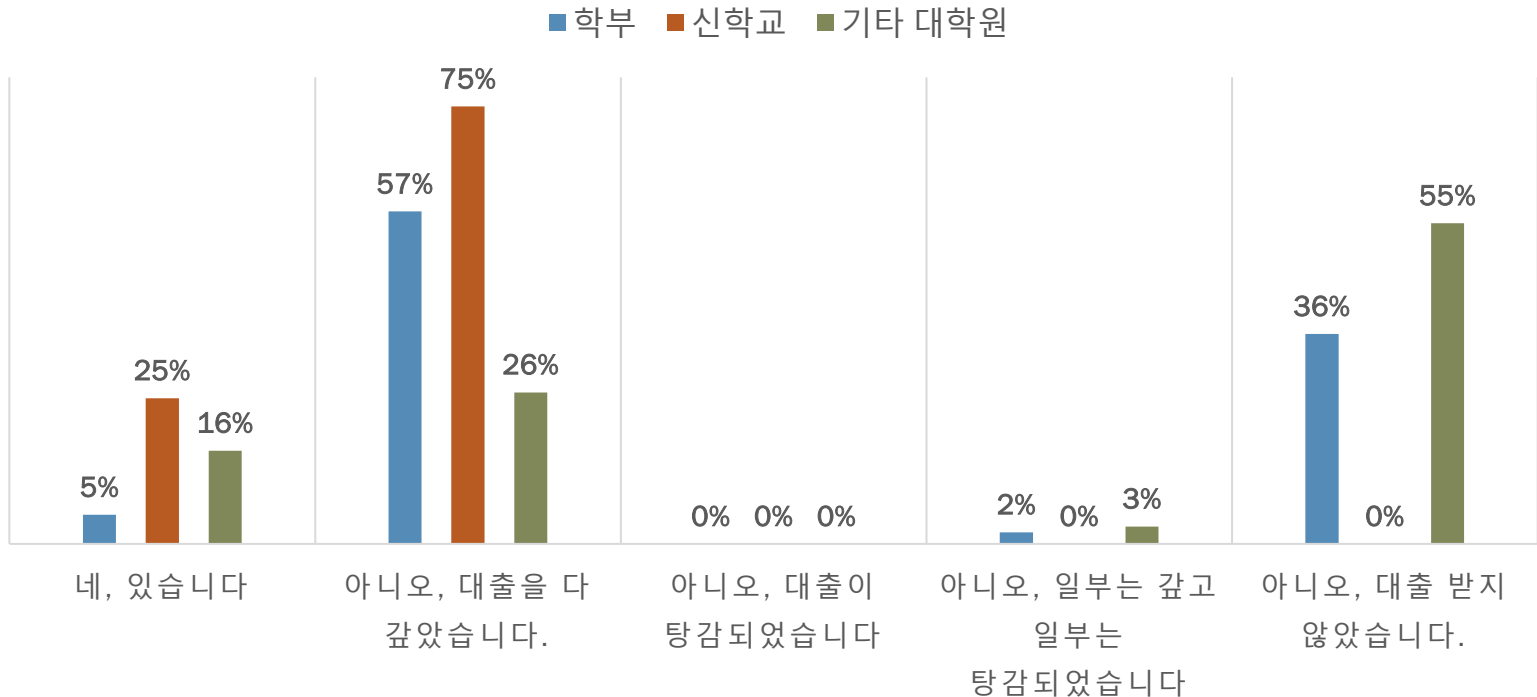


일반 직업에 종사하는 목회자 학자금 대출 상태

일반 직업에 종사하는 목회자: 현재 사역을 하고 있지 않은 목회자

일반 직업에 종사하는 목회자의 25%가 신학교 교육을 위해 미지급 대출 잔액이 있다고 했다. 75%는 신학교 대출금을 갚았다고 보고하였다(비은퇴 목회자 중 가장 많음). 신학교 교육을 위해 대출을 받지 않았거나 대출을 탕감받았다고 보고한 이는 아무도 없었다.

일반 직업에 종사하는 목회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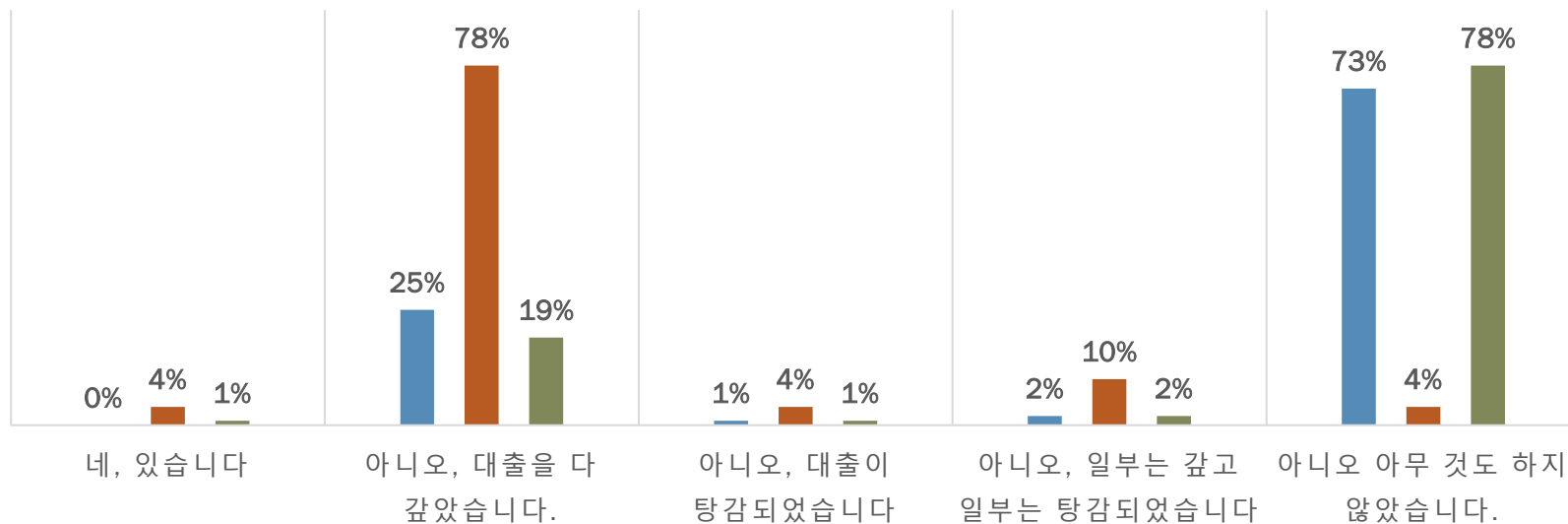
은퇴 목회자 학자금 대출 상태

*은퇴 목회자: 사역을 그만 둔 목회자

은퇴 목회자의 4%는 신학교 교육 관련 미상환 대출 잔액이 있다고 보고했으며, 78%는 신학교 대출을 다 갚았다고 했다. 오직 응답한 목회자의 4%만이 신학교 교육을 위해 학자금 대출을 받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4%는 대출이 탕감되었고, 10%는 대출의 일부를 갚고 있고 나머지는 탕감되었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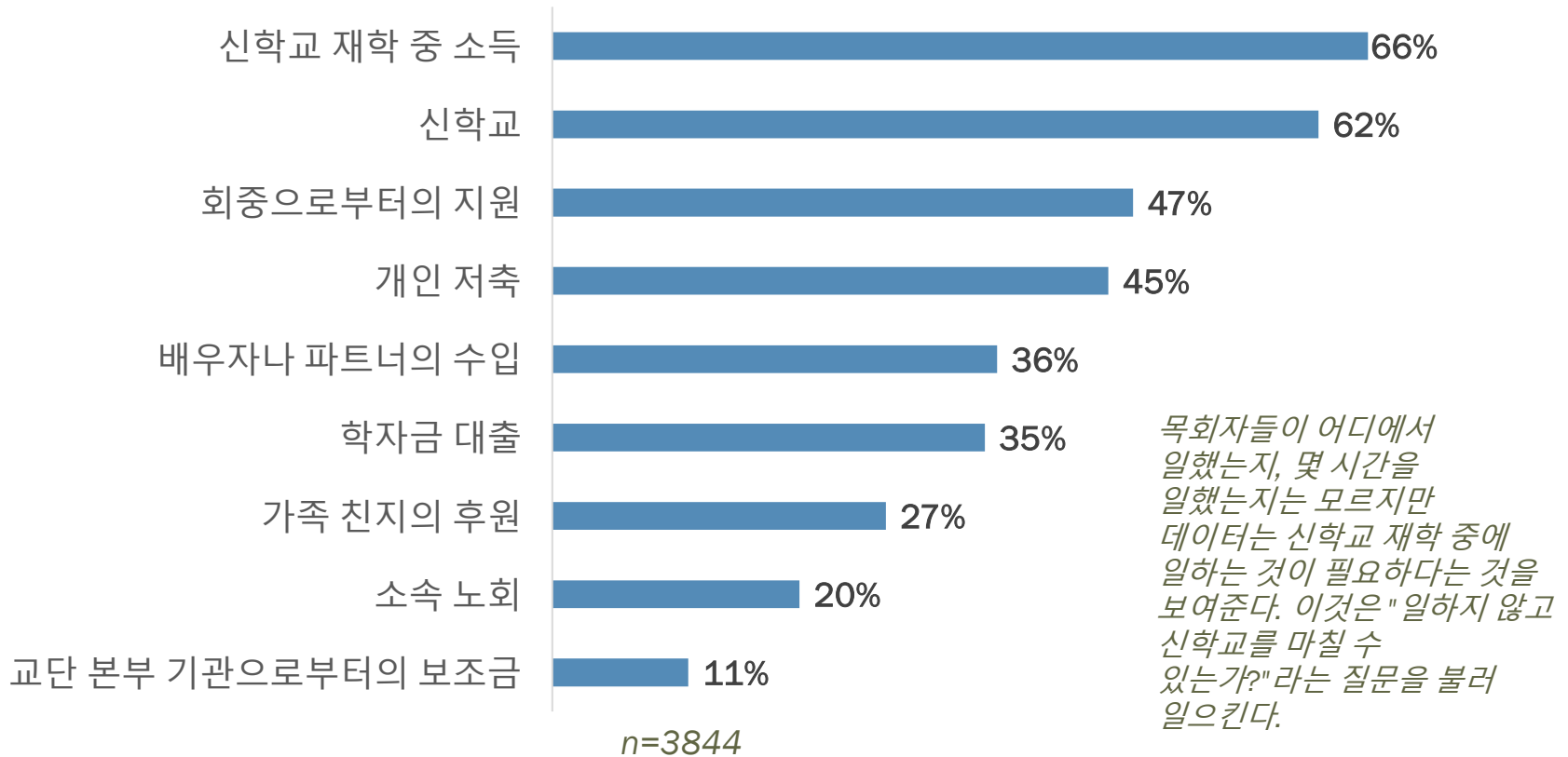
은퇴 목회자

■ 학부 ■ 신학교 ■ 기타 대학원



다음 중 신학교 재학 비용을 지불하는 데 도움이 된 것은 무엇인가?

학교 비용을 지불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중, 신학교 재학 중 수입(66%)과 신학교로부터의 지원(62%)은 목회자들이 응답에서 상위를 차지한 두 가지이다. 신학교 재학 비용에는 등록금, 책값, 주거비, 식비 및 건강 보험 등이 포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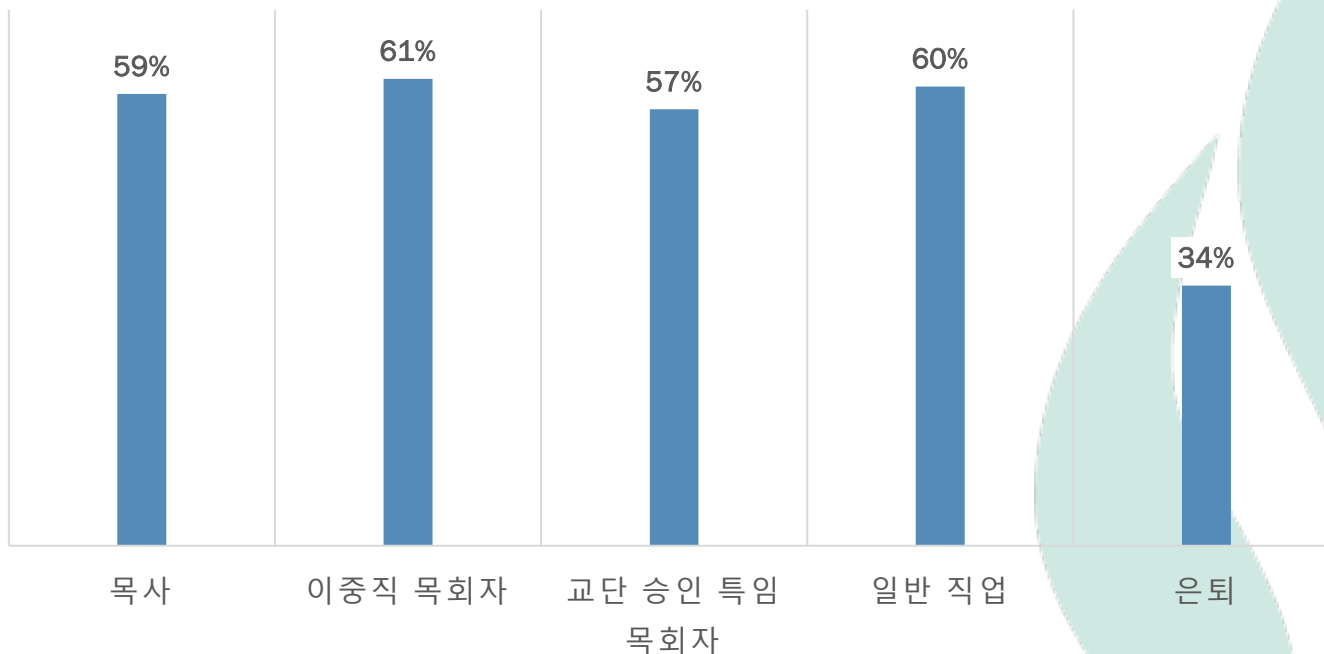
자녀 교육



자녀 교육 비용에 대해 얼마나 걱정하고 있는가?

은퇴한 목회자를 제외하고 응답한 목회자 절반 이상이 그들이 부양하는 자녀의 교육비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은퇴 목회자는 34%가 이에 대해 어느 정도 걱정을 하고 있었다. 은퇴한 목회자가 지원하는 자녀의 수와 재학 기간(학부, 대학원)은 알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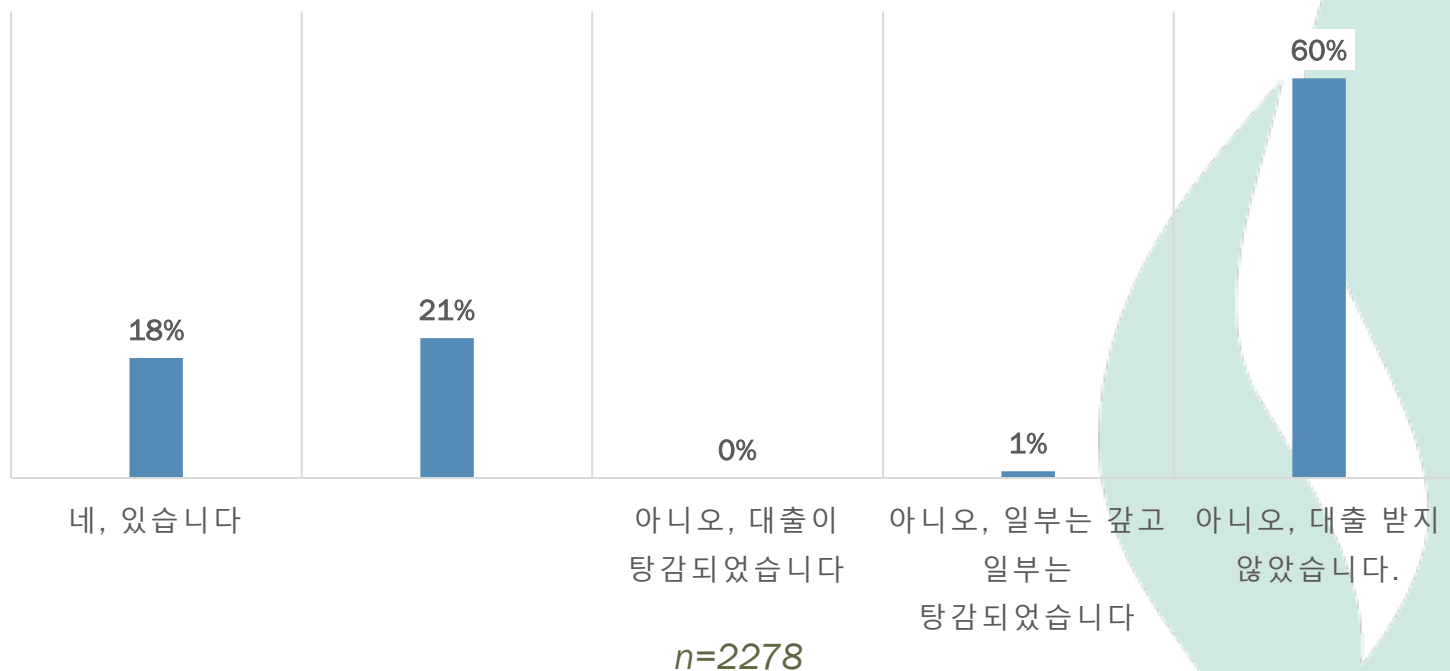


n=2801

미상환 자녀 학자금 대출이 있습니까?

응답한 목회자의 18%는 그들이 부양하는 자녀를 위한 학자금 대출을 다 상환하지 못했다고 보고했다. 21%는 이러한 대출금을 갚았다고 보고했다. 대부분은 자녀 학자금 대출을 받지 않았거나 아직은 받지 않았다고 했다. 이러한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더이상 부채를 감당할 수 없어서 부모들이 자비로 내는 것인가? 아니면 자녀들이 직접 학자금 대출을 받는가?

아직 갚지 않은 자녀를 위한 학자금



학자금 부채

이 부분은 목회자 자녀의 학자금 부채와 목회자의 부채에 대해서 다룹니다.



사역 별 채무액(은퇴 목회자 포함)

미상환 학자금 대출이 있는 응답 목회자 중, 각 목회자 그룹의 거의 30%가 \$50,000 혹은 그 이상의 학자금 채무를 지고 있었다. 은퇴 목회자 27%도 이러한 채무액을 지고 있었다. 은퇴 시 수입은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많은 은퇴 목회자가 교단 승인 특임 목회자보다 수입이 적다고 보고했다. 그들은 \$50,000 또는 \$100,000 이상의 채무를 상환할 수 없을 것이다.

	\$10k 이하	\$10-25k	\$25-50k	\$50-100k	\$100k 이상	잘 모름	n=
목사	16%	21%	25%	24%	12%	2%	470
이중직 목회자	18%	21%	23%	23%	10%	5%	82
교단 승인 특임 목회자	12%	26%	17%	29%	17%	--	66
일반 직업	17%	8%	25%	17%	33%	--	12
은퇴 목회자	30%	13%	30%	20%	7%	--	30

학자금 부채

흑인 목회자는 가장 큰 부채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31%가 10만 달러 이상 빚을 지고 있다. 27% 흑인 목회자는 \$50-100,000의 빚을 지고 있다.

그 다음이 아시아계, 백인, 히스패닉 순으로 이어진다. 이 표는 부채가 가장 많은 순서대로 작성되었다.

	\$10k 이하	\$10-25k	\$25-50k	\$50-100k	\$100k 이상	잘 모름	n=
흑인	8%	8%	27%	27%	31%	--	26
아시아계	11%	18%	25%	18%	25%	4%	28
백인	17%	22%	25%	25%	11%	2%	559
히스패닉	25%	25%	8%	25%	8%	8%	12
기타 인종	--	20%	40%	20%	20%	--	5
다인종	26%	26%	16%	16%	16%	--	19

위의 인종/민족 범주는 미국장로교 총회 사무국에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하다.

목회자 연령별 학자금 채무 총액

은퇴 연령 목회자(65세 이상)의 31%는 \$50,000 이상의 학자금 채무를 지고 있었다. 이러한 개인은 사망 시까지 이 부채를 해결하지 못할 확률이 커보인다. 50 대의 36%와 같이 좀 더 젊은 연령 그룹에서도 같은 채무액을 가지고 있다면, 똑같은 운명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10k 이하	\$10- 25k	\$25- 50k	\$50- 100k	\$100k 이상	잘 모름	n=
20-29세	6%	38%	13%	44%	--	--	16
30-39세	17%	19%	22%	32%	10%	1%	153
40-49세	18%	18%	28%	26%	10%	--	144
50-59세	16%	20%	26%	20%	16%	3%	153
60-64세	16%	26%	22%	17%	15%	5%	108
65세 이상	16%	20%	28%	19%	12%	4%	74

목회자 성별과 학자금 채무 총액

여성 목회자의 38%와 남성 목회자의 34%는 5만 달러 이상의 빚을 지고 있다고 보고했다. 설문에 응한 비양성(non-binary) 목사는 모두 50,000달러 이상의 빚을 지고 있다고 보고했다.

	\$10k 이하	\$10-25k	\$25-50k	\$50-100k	\$100k 이상	잘 모름	n=
여성	16%	20%	25%	26%	12%	2%	317
남성	17%	22%	24%	22%	12%	2%	334
비양성(non-binary)	--	--	--	67%	33%	--	3

월별 학자금 부채 상환

은퇴한 목회자의 20%는 매달 학자금 대출로 \$501 이상을 지불한다고 보고했다. 목회자의 18%, 이중직 목회자의 13%, 교단 승인 특임 목회자의 21%가 동일한 비용을 지불한다고 보고합니다. 매월 \$501 이상을 지불하는 것은 상당한 지출이다. 주택 담보 대출이나 자동차 할부 비용 같은 월별 주요 지출과 비슷한 금액이다.

	없다.	\$1- \$100	\$101- \$250	\$251- \$500	\$501- \$1000	\$1000 이상	모른다 *
목사	12%	8%	23%	33%	15%	3%	5%
이중직 목회자	13%	10%	33%	28%	9%	4%	4%
교단 승인 특임 목회자	9%	11%	24%	33%	15%	6%	2%
일반 직업	33%	8%	42%	8%	8%	-	--
은퇴	20%	7%	33%	20%	13%	7%	--

* 일부 목회자들이 현재 학자금 대출에 대해 아무것도 내지 않는 이유에 대한 정보는 없다.

n=674

학자금대출 부채의영향



총 학자금 대출 또는 부모 학자금 대출로 인한 채무는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n=679

목회자 학자금 대출로 인해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삶의 측면은 차량이나 주요 가전 제품을 교체하는 것이다. 목사의 43%가 이렇게 응답하였다. 26%는 사역으로의 부름을 들었다. 학자금 대출이 없었다면 고려했었을 사역에 대해서, 학자금 대출 때문에 응하지 못했다고 한다. 다른 22%는 학자금 대출 때문에 은퇴하지 못한다고 했고 3%는 학자금 대출 때문에 어떤 종류이든지 사역에 임하지 못한다고 했다.

43% 차량이나 주요 가전 제품 등을 바꿀 수 없다.

37% 휴가를 가지 못한다.

26% 부채가 없다면 고려했을 부르심에 응하지 못한다.

22% 집을 살 수 없다.

22% 은퇴할 수 없다.

7% 꼭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필요한 처방약을 사지 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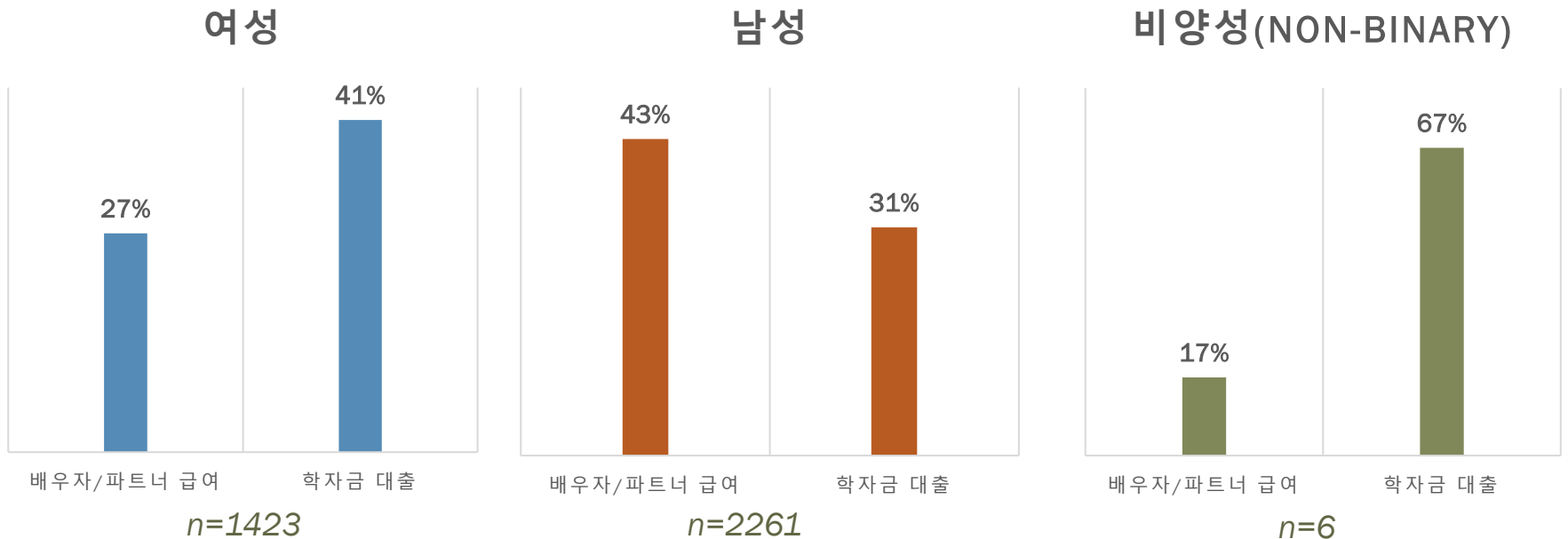
3% 어떤 사역도 할 수 없다.

성별에 따른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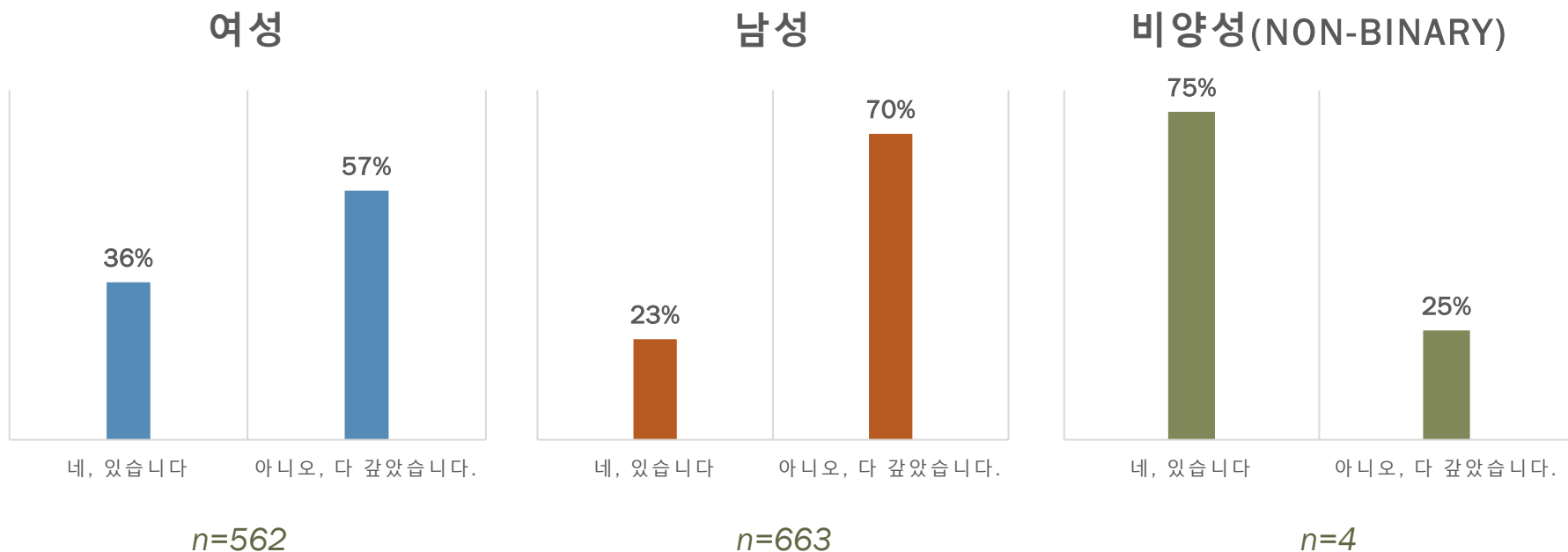
신학교 재학 비용에 대한 도움

남성은 배우자 또는 파트너로부터 더 많은 재정적 지원을 받고, 비양성과 여성보다 대출이 적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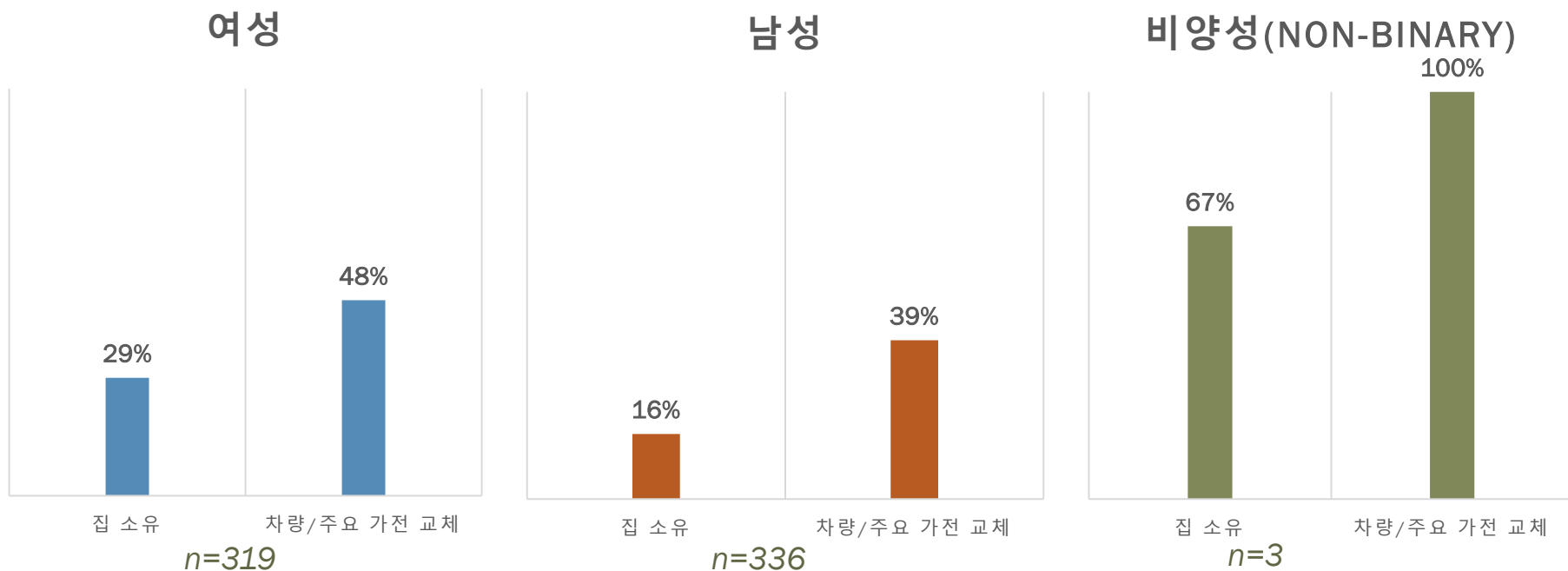
신학교 교육 관련 미상환 대출

응답한 여성의 36%는 신학교 교육 관련 미상환 대출이 있다고 보고 했다. 이와 비교해서 남성은 23%만 동일한 답을 하였다. 또한 여성의 57%는 신학교 학자금 대출을 다 갚았다고 보고한 반면 남성은 70%에 달했다.



학자금 대출이 어떻게 당신의 삶에 영향을 주었는가?

총 학자금 대출과 부모 학자금 대출 부채가 삶의 다양한 측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물었을 때, 여성의 29%는 학자금 대출이 주택 소유를 방해한다고 답했다. 남성은 16%가 같은 답을 했다. 여성의 48%는 학자금 대출로 인해 차량 및/또는 주요 가전제품을 교체할 수 없다고 보고한 반면 남성의 39%만 같은 대답을 하였다.



인종에 따른 차이



신학교 재학 비용을 지원한 인종별 학자금 대출

신학교 비용을 충당하는 데 어떤 지원을 받았는지 물었을 때, 아시아계 목회자의 30%, 백인 목회자의 35%, 흑인 목회자의 52%가 학자금 대출을 사용했다고 대답했다.

이 질문에 응답한 수는 3665 명이었는데, 이는 10 페이지의 “신학교에서 빌린 용자금이 현재 남아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보다도 더 많았다.

이 도표는 높은 %에서 낮은 % 순으로 정리되었다.

	%	n=
흑인	52%	60
기타 인종	40%	10
다인종	39%	59
중동계	38%	8
백인	35%	3361
아시아계	30%	105
미 원주민	25%	4
히스패닉	21%	58



인종별 미상환 학자금 대출

히스패닉 목회자의 42%, 아시아계 목회자의 52%, 흑인 목회자의 62%가 신학교 교육을 위한 미상환 학자금 대출이 있다고 보고했다. 백인 목회자 28%가 같은 응답을 했다. 백인 목회자의 65%가 신학교 대출을 갚았다고 보고한 반면, 히스패닉 목회자의 58%, 아시아계 목회자의 45%, 흑인 목회자의 38%만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도표는 높은 순에서 낮은 순으로 정리되어 있다.

	네, 있습니다.	아니오, 다 갚았습니다.	학자금 대출을 받지 않았습니다.	n=
흑인	62%	38%	--	29
아시안	52%	45%	3%	29
중동계	50%	50%	--	2
히스패닉	42%	58%	--	12
백인	28%	65%	2%	1125
다인종	27%	64%	--	22
기타 인종	25%	25%	--	4
미 원주민	--	100%	--	1

미국장로교 목회자 설문조사: 학자금 부채 인종별 자녀 학자금 대출

전반적으로, 대다수의 목회자들은 자녀에 대한 교육 부채를 생각하지 않는다고 보고했다. 중동계 목회자 50%, 아시아계 목회자 35%, 흑인 목회자 32%가 자녀를 위해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다고 보고했다.

도표는 높은 순에서 낮은 순으로 정리되어 있다.

	네, 있습니다.	아니오, 다 같았습니다.	학자금 대출을 받지 않았습니다.	n=
중동계	50%	50%	-	2
기타 인종	50%	17%	17%	6
아시아계	35%	13%	50%	54
흑인	32%	27%	41%	34
다인종	31%	24%	45%	29
미 원주민	25%	25%	50%	4
히스패닉	22%	7%	70%	27
백인	17%	21%	60%	2025

우리가 배운 것은
무엇인가?



신학교 관련 부채

이 연구에 참여한 목회자의 28%가 신학교 교육을 위해 대출을 받았다*
29%는 여전히 이 부채를 가지고 있으며 연령과 관계가 없었다.

예전에는 신학교 학생들은 대부분이 20대 또는 30대 초반으로 젊었다. 이제 신학교 학생들의 나이 범위는 수 십년에 걸쳐있다. 그렇다. 젊은 학생들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목회가 그들의 두 번째 커리어가 되는 학생들도 있다. 그들은 나이든 학생으로서 학교로 되돌아 가야하는 것이다. 하지만 학생들이 20대이든지 40 대이든지에 상관없이, 그들은 신학교를 다니기 위해 대출을 받는다.

이 연구에 참여한 이종직 목회자의 48%는 여전히 신학교 관련 부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통계를 들여다 보면 질문이 생긴다: 이종직 목회자는 본인의 선택으로 된 것인가 - 즉 목회를 하면서 이종직 목회자가 된 것은 계획한 일이었을까? 아니면 그들 회중이 풀타임 급여를 지불할 수 없기에 이종직이 된 것인가? 한 목사는 자신이 이종직이기에 회중이 다른 사역을 위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썼다. 이것은 아마도 예외적인 경우지만, 2021년 가을에 있을 이종직업 목회자 연구에서 연구될 것이다.

적은 수의 목회자가 다양성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밝혔다. 질문에 대한 응답자의 수가 3명에서 6명까지 다양했기 때문에 이 숫자가 얼마나 대표적인지 알 수 없다. 다양성 정체성을 가진 목회자의 총 숫자가 더 잘 밝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 6명의 응답자가 모든 다양성 목사를 얼마나 대표하는지 일반화할 수 없다. 이 6명 중에서, 우리는 대부분이 신학교 재학을 위해 대출을 받았고 여전히 그로 인한 부채를 가지고 있으며 부채로 인해 제한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미국장로교는 목회자의 학자금 관련 부채 해결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응답자가 남긴 언급을 보면, 모든 목회자가 이러한 기회를 알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2020년 8월 신학교 협의회(ATS) 보고서에 따르면, 신학교 졸업생의 40%가 약간 넘는 수가 신학교 관련 부채를 가지고 있다. 이는 본 조사의 응답자로부터 발견된 것보다 더 높다. 설문조사는 시간의 한 조각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다. 이 질문에 대해 우리는 이 답변이 모든 장로교 목회자를 대표한다고 확신할 수 없다.*

채무를 지닌 은퇴

퇴직연령 목회자 74명이 여전히 학자금 부채가 있다고 보고했다.

일부 목회자들이 일부 교육 부채를 안고 은퇴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31%가 \$50,000가 넘는 교육 관련 부채를 지닌 채로 은퇴한 것을 보면 놀라운 일이다. 12%는 \$100,000 이상의 빚을 지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은퇴 후 소득이 감소하기 때문에 부채 상환이 더 어려워진다는 것을 알고 있다.

대부분의 은퇴한 목회자들이 은퇴하지 않은 목사 대부분보다 수입이 더 낮다고 보고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들은 \$25,000에서 \$50,000를 번다고 보고했는데, 은퇴하지 않은 목사들은 \$50,000에서 \$75,000까지 벌고 있었다. 우리는 은퇴 목회자들의 은퇴 전 수입에 대해서는 정보가 없다. 그들이 가장 일반적인 목사 사례를 받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은퇴 후 그들의 수입은 줄어들어 학자금 부채를 상환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2019년, 마켓워치(Market Watch)와 너드월렛(NerdWallet)은 평균 미국 가정이 주택 융자금과 학자금융자를 포함해 \$137,729의 부채를 갖고 있다고 보고했다. 2019년 너드월렛에 따르면, 평균 부채를 갚는데 10년 혹은 그 이상이 걸릴 것이고, 9%는 결코 갚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학자금 대출을 제외한 목회자 재정 보고서처럼, 우리는 큰 규모 학자금 부채가 있다고 한 목회자들의 대답이 잘못된 것이었으면 하고 바랄 것이다. 조사의 익명성으로 인해 개인의 데이터를 확인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데이터를 정확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그러나 소득이 감소한 은퇴 목회자가 규모가 큰 학자금 대출 잔액을 상환할 수 있을까? 아니면 빚을 진 채로 죽을 것인가?

*<https://www.nerdwallet.com/blog/household-credit-card-debt-study-2019/>

글을 닫으며

채무는 나이, 인종/민족, 성별 또는 사역 상황과 관계없이 목회자들의 걱정거리이다.

부채로 인해 삶은 제한된다. 자동차와 가전제품의 교체는 물론, 주택 구입 같은 주요 구매를 어렵게 만든다 꼭 필요한 휴식과 재충전을 할 휴가는 많은 이에게 꿈같은 이야기였다. 휴가는 꼭 필요한 것이 아닌 것으로 취급되었다.

자신이나 가족을 위해 학자금 부채를 지고 있는 목회자의 39%는 \$50,000 이상의 채무를 지니고 있었다. 다달이 \$101 - \$250를 갚고 있는 목회자가 31%로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17%는 \$500 이상을 갚고 있기도 했다. 체이스 은행에 따르면, 건전한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소득의 36% 미만이 부채 상환에 사용되는 상태이다. 42% 이상으로 오르면 기존 부채를 현재 소득으로 상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다른 부채를 포함하지 않고, 학자금 부채에 대해서만 매월 1,000달러를 지불하는 소득 \$25,000 미만 목회자들은 재정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여성은 남성보다 신학교 부채 비율이 더 높고, 신학교 기간 동안 배우자나 파트너의 지원이 적다고 보고했다.

흑인, 히스패닉, 중동계로 정체성을 밝힌 목회자들은 백인 목회자들보다 급여가 낮은 경향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부분 연간 \$50,000 미만을 벌지만, 대부분의 백인 목회자들은 \$50,000 ~ \$75,000를 번다.

다시 말하지만, 가능한 모든 질문을 하고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고려하려면 설문조사로는 부족하다. 인터뷰를 하거나 포커스 그룹 설정에서 질문을 했다면, 더 많은 영역을 탐구할 수 있었을 것이다.

우리가 묻지 않는 몇몇 질문들이 있다. 목회자들은 자신들의 자녀 학자금 대출이 자녀의 채무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생각했는가? 신학교 재학을 위해 빌린 돈의 원금이 얼마였을까? 교육관련 부채가 은행에서 채용자되었는지 신용카드로 이체되었는지 묻지 않았다.

은행이나 연방 지명기관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 학자금 부채에 대해서는 파산을 선언할 수 없다. 따라서 일부는 교육 부채를 지니고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

리서치 서비스는 미국장로교가 설문조사, 주요 대상 면접, 인구통계적 분석, 프로그램 평가 등을 이용해 데이터에 기초한 결정을 하도록 돕고 있다.

우리는 사회학, 공공정책학, 경제학 등의 배경을 지닌 사회과학자들이다. 우리는 미국장로교 교회, 노회, 대회, 총회 기관 및 관련 조직을 섬기고 있다. 리서치 서비스는 행정서비스 그룹의 사역의 한 부분이다.

질문이 있거나 이 보고서 사본을 원하실 경우,
502-569-5077로 전화주시거나 research@pcusa.org 로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오.



**RESEARCH
SERVICES**